

동구, 영화 ‘재심’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동구 아카데미 8일 대회의실

영화 ‘재심’의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준영 (사진)변호사가 동구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다.

광주 동구는 8일 오후 2시 제268회 동구 아카데미에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주제로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했다



거리 택시 기사 사건 변호사의 실제 주인공이다. 재심은 240만명의 관객이 동원됐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시민들에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현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동구 아카데미 강연을 듣고자 하는 주민은 모바일 앱 ‘두드림’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연 시작 전 15분간 사전 공연이 준비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마지막 동구 아카데미를 준비하며 주민들을 위한 강사

초빙강사를 고민했다”며 “영화 같은 실화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법과 인간 그 간격을 메우는 인문학적 성찰의 장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아카데미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열렸다. 박준영 변호사 강연을 끝으로 우수참여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동절기 주민생활 안정 대책 북구, 재난 대비 등 17개 과제

광주 북구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주민 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주민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3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결식 우려 아동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등 복지 대상별 대책을 마련했다.

3만여 포기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보일러 점검이나 난방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폭설·한파가 찾아와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제설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는 등 동절기 재해·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경제위기로 절박한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내집앞 맨발길 주민 소통마당 광산구, 보행로 추진·의견청취

광주 광산구는 8일 오후 2시 첨단1동 31호 교통광장, ‘첨단아미둘레길’ (월계동 761-7번지) 일원에서 ‘내집앞 맨발길 주민 소통마당’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광산구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맨발 걷기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는 ‘내집앞 맨발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소통마당에서는 주민·맨발걷기 동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산구의 ‘내집앞 맨발길’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근 조성을 완료한 광산구 최장 맨발길인 첨단아미둘레길(3410m) 구간 중 600m를 직접 맨발로 걷고 참여자가 다 함께 발자국을 남기는 설정극(퍼포먼스)도 진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맨발 걷기 모임, 주민 참여를 통한 맨발로 유지·관리 활동 등 시민 중심의 맨발 걷기 활성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연주회 오늘 남구문화예회관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조현주 관장)은 지역 초등생~고교생으로 구성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가 7일 오후 7시 광주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제 11회 정기연주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공연에는 ‘사랑의 인사’ ‘문 리버’ 등과 행진곡, 가곡 등을 연주하며 다양한 세대에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현주 남구문화예술회관장은 “66명의 단원들이 연습을 통해 화합을 배우고 양진 음악감독의 가르침을 받았다”며 “광주 대표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 아동, 청소년이 음악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전국 49개 기관에서 탄생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다. 광주는 지난 2016년부터 남구청 예산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에 무상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1년차인 ‘꿈의 오케스트라’는 광주 소재 33개 초중고 65명이 참여해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등 8개 파트에서 활동 중이다.

정성이 인턴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 5일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서구, 동행축제’를 개최했다.

광주 서구 제9

서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행축제’

연간 활동 우수사례 발표

광주 서구는 지난 5일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서구, 동행축제’를 개최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돌봄 공동체로, 18개 동 435명의 지역주민들이 봉사나 나눔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도움을 주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날 축제에는 18개 동 보장협의체 위

원 150명이 참석해 동별로 1년간 추진한 민간협력 사업과 우수활동을 연극, 합창, 브이로그 영상, PPT 발표 등 퍼포먼스를 통해 발표했다.

보장협의체 활동의 효과적 전달, 현장 호응도 및 관객과의 소통,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도 등을 평가해 4개 동에 내걸에 수호천사상(30만원, 동천동), 동행상(20만원, 서창동), 함께상(10만원, 상무1동·농성1동)을 수여했다.

동천동은 ‘Love in 동천동 학당’이라는 주제로 책마를 동천 복지이야기를 연

극으로 보여줬으며, 현장 호응도와 발표 방식의 기발함에 높은 평가를 받아 ‘내걸에 수호천사상’을 받았다.

서구는 경연과 더불어 위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1년간의 동 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협력력이 중요하다”며 “따뜻한 광주 서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북구, 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 참여한 79곳 지자체 중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한계는 없습니다’ 사례를 공모, 장려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 공모 사례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지방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부담금 등 민원인이 지방세로 혼동하는 민원 분야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복합적인 세무행정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익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남구, 청년 구직자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해줍니다

1인당 3회·2박3일

광주 남구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을 무료 대여한다.

6일 남구는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관내 구직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장 대여 서비스 시행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범 운영을 위해 동구 불로동 웨딩의 거리 소재 맞춤 정장 업체인 다나베 비스포크와 계약을 맺고 올해 연말까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둔 19~45세 구직 청년이다. 대여 가능 횟수는 1년에 총 3번이며 1번 빌릴 때마다 2박 3일간 대여할 수 있다.

면접용 정장을 빌리려는 청년은 본인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등을 지참해 남

구청 6층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내년에도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맞춤형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 의류비 부담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이 인턴기자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홍보

광주 남부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나섰다.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연립·다세대)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남부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방지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시민설치단’을 운영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남구 관내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3300여개를 1300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했다.

지용주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가족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성이 인턴기자